LG유플러스, 디즈니플러스 국내 독점 제휴 계약

디즈니와 손잡은 LGU+…시장 또 한번 흔드나

IPTV서비스 중 유일 제공…가입자 확대 기대
디즈니플러스 제휴 요금제도 선보일 예정
전용 리모컨으로 콘텐츠 이용 편의성 UP
픽사·마블·스타워즈 등 폭넓은 콘텐츠 제공

LG유플러스가 디즈니와 제휴를 맺고 IPTV 등을 통해 디즈니플러스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가 홈 시네마족을 겨냥해 최근 선보인 사운드바 타입의 신규 셋톱박스 'U+tv 사운드바 블랙'.
사진제공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디즈니와 손을 잡았다. 디즈니가 11월 국내에 선보이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를 IPTV와 케이블TV를 통해 제공하는 국내 독점 제휴 계약을 맺었다. U+tv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IPTV에서 디즈니와 마블 등 세계적인 인기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와도 협력하는 LG유플러스가 국내 OTT와 유료방송 시장의 판을 또 한번 흔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용 리모컨도 제작 예정

LG유플러스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IPTV, 모바일 제휴를 위한 계약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사는 최근 협상을 마무리 짓고, 11월 12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는 글로벌 OTT 디즈니플러스를 LG유플러스 IPTV·모바일, LG헬로비전 케이블TV와 연동한다. 이에 따라 U+tv와 헬로tv, LG유플러스의 5G 및 LTE 이용자들은 보다 손쉽게 디즈니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본격적인 서비스에 앞서 디즈니플러스 제휴 요금제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U+tv의 디즈니플러스 전용 리모컨을 제작해 콘텐츠 이용 편의성도 강화한다. 소비자들이 IPTV 메뉴를 통한 콘텐츠 탐색 과정 없이 어떤 화면에서도 디즈니플러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컨에 별도 버튼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부사장)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미디어 서비스 사업·운영 역량과 디즈니의 우수한 콘텐츠가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수요와 미디어 이용 행태를 반영한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이른바 'LG유플러스 찐팬'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막강 콘텐츠 파워 시너지 기대

LG유플러스는 막강한 콘텐츠 파워를 가진 디즈니플러스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디즈니와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타 등 6개 핵심 브랜드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한다. 디즈니의 영화, TV 프로그램부터 월트디즈니 스튜디오의 최신작, 스타 브랜드를 통해 제공되는 ABC, 20세기 텔레비전, 20세기 스튜디오, 서치라이트 픽처스가 제작한 작품들까지 폭넓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U+tv는 IPTV 서비스 중 유일하게 디즈니플러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는 앞서 넷플릭스와의 독점 제휴로 IPTV 가입자 확대에 쏠쏠한 재미를 본 경험이 있다. 2018년 11월 넷플릭스 서비스를 시작한 뒤 LG유플러스 IPTV가입자는 매 분기 약 10만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들어 가입자수 5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시장 진출과 LG유플러스와의 제휴 등으로 국내 OTT 및 유료방송 시장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KT는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스튜디오 지니와 '시즌' 등을 통한 자체 콘텐츠 및 OTT 강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SK텔레콤의 경우 OTT '웨이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애플TV 등과의 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국감 타깃된 '빅테크'…카카오·네이버·쿠팡 등 줄소환 예고

플랫폼·게임기업 잇달아 증인 채택
영향력 커지며 독과점 등 폐해 늘어

10월 1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카카오 등 최근 도마 위에 오른 플랫폼 기업은 물론 통신과 게임기업 등 빅테크 기업인들이 잇달아 증인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는 이번 국정감사에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김정주 넥슨 창업주,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도 증인으로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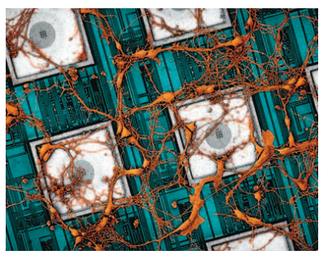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GIO),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노동위원회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빅테크 기업인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줄줄이 호출된 이유는 산업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영향력이 커지면서 독과점과 갑질 등 폐해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마구잡이식 기업 때리기로 사업이 위축되고 혁신 서비스 등장을 저해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도 있다.

김명근 기자

삼성전자, 뇌닮은 '뉴로모픽'칩 미래비전 제시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 게재…뇌 고차원 기능 재현 목표



삼성전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진과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인 '뉴로모픽' 칩(사진)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함돈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펠로우 겸 하버드대 교수,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 황성우 삼성SDS 사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필한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게재됐다.

뉴로모픽 반도체는 사람의 뇌 신경망에서 영감을 받거나 또는 직접 모방하려는 반도체로, 인지와 추론 등 뇌의 고차원 기능까지 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논문은 뇌 신경망에서 뉴런(신경세포)들의 전기 신호를 나노 전극으로 측정해 뉴런 간의 연결 지도를 '복사'하고, 복사된 지도를 메모리 반도체에 '붙여넣어' 뇌의 고유 기능을 재현하는 뉴로모픽 칩의 기술 비전을 제안했다.

함돈희 펠로우는 "이번 논문에서 제안한 담대한 접근 방식이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기술의 경계를 넓히고, 뉴로모픽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LG전자, 안내로봇 '클로이' 신제품 시범 서비스

목적지 동반 서비스부터 도슨트·보안업무 수행까지

LG전자가 안내로봇 'LG 클로이 가이드봇' 신제품(사진)을 선보인다. LG전자는 더블유티씨서울과 내달부터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몰에 신제품 2대를 배치하고 3개월 동안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클로이 가이드봇은 건물 내 주요 시설물 안내는 물론, 고객과 목적지까지 함께 가는 '목적지 동반 서비스'도 해준다. 도슨트 기능도 있다. 도서관, 박물관, 전시관 등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콘텐츠를 소개하며 투어를 진행할 수 있다.

로봇은 전면과 후면에 27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있다. LG전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활용해 화면에 나오는 광고를 손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로봇은 심야 시간에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며 촬영하는 등 보안업무도 수행한다.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안 솔루션과도 연동할 수 있다.

한편 LG전자가 2018년 출시한 클로이 가이드봇은 인천공항,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GS건설 모델하우스,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9월 27일 (월) 음력: 8월 21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흰색 길방:서	소 행운색:적색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토끼 행운색:적색 길방:남	용 행운색:적색 길방:남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의욕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아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욕구분출, 잠재력발휘의 날이다.	현실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엉켰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며 금전문제도 해결되니 경솔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오늘은 겁살일이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오늘은 호랑이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시도하라. 오늘은 망신날이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 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은 겁살일이다.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양 행운색:흰색 길방:서	원숭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닭 행운색:검정 길방:북	개 행운색:적색 길방:남	돼지 행운색:흰색 길방:서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모함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자신의 반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은 지살일이다.	냉전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은 망신살에 귀문살이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오늘은 역마일이다. 지살과 역마의 만남이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오늘은 겁살일이다. 장성이 겁살을 만났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지살일이다. 화개가 지살을 만난 날이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므로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되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크게 이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앞서거나 서두르지 말라.

오늘의 날씨

27일(월)

서울 30/30	인천 30/30	춘천 30/30	
18 / 24	19 / 23	15 / 24	
강릉 30/30	대전 30/30	전주 30/30	
16 / 23	17 / 23	17 / 25	
광주 30/30	대구 30/30	부산 30/30	
17 / 25	16 / 24	19 / 25	
창원 30/30	제주 20/20	지역 / 강수 확률 (오전/오후)	
18 / 25	21 / 27	날씨 /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69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